

세계 최대의 금동불 '나라 대불' 제작에도 한반도 도래인들이 공헌



도다이지 절의 노사나 불상

'나라 대불'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높이 15m의 세계 최대 금동불로 유명한 절이며 대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대불전도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대불은 752년에 건립되었는데, 이 대불 제작의 지휘를 맡은 사람은 백제 도래인의 손자로 대불전 건설에도 한반도 도래인들이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라시대를 대표하는 절 도다이지는 8세기 중반 헤이조쿄의 동쪽에 지어진 대사원으로 대불전(금당)을 중심으로 난다이몬, 훗케도 당, 쇼소인 창고 등의 많은 건물들이 자리해 있습니다. 대불전은 높이 48m로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이며, 본존인 노사나 불상은 추정 무게 380t(본체+대좌)에 높이 15m의 거대한 동상으로 '나라 대불'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니가쓰도 당(二月堂)에서 매년 3월에 열리는 '오미즈토리'는 8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행사로 약 한 달에 걸쳐 엄격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행이 끝나면 나라에 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도다이지의 건립 및 대불 제작은 도래인들의 공헌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백제계 도래인의 후예 로벤 승정은 도다이지의 창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대불 제작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누빈 고승 고키(行基)의 아버지는 백제계 도래인 씨족의 후예 가와치노야시(西文氏) 일족인 고시노사이치(高志氏才智)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불 주조의 총지휘를 맡은 사람은 백제 멸망 당시 백제 왕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한 구니노코쓰후(國骨富)의 손자 구니나카노무라지키미마로(國中連公麻呂)이고, 대불전 건립에는 신라계 도

래인의 자손인 목수 이나베노모모요(猪名部百世)가 총감독을 맡아 높은 기술력을 발휘하여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대불에 도장할 금이 부족했을 때는 무쓰 지방(지금의 도호쿠(東北) 지역)에 있던 백제 왕가의 후예 고후쿠(敬福)가 무쓰에서 생산한 사금을 보내 대불 완성에 공헌했다고 하는 등 대불 제작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한반도 도래인이었습니다. 또한 대불 개안의 해 6월에 신라국의 왕자 김태렴이 대불을 배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CHECK!
기둥 구멍
대불의 꽃구멍과 같은 크기의 기둥 구멍이 있으며 이 구멍을 통과하면 부처님의 은총이 있다고 합니다.



도다이지 절 대불전

소소인 Shoso-in Hall 正倉院



도다이지 절 대불전의 복서쪽에 위치한 아제쿠라(叢倉) 건축양식의 보물창고. 불교를 중심으로 평화로운 국가를 염원한 쇼무천왕의 예장품과 실크로드의 문물 등 8세기의 유물품으로서 유명한 소소인의 보물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새 보물창고에서 보존) 신라 시대 때에 전해진 '금니회신라금(金泥繪新羅琴)', 신라에서 사경되었다고 여겨지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소인의 보물은 비공개입니다만 매년 가을에 나라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소소인전'에서 보물의 일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Askaen Photo Library 仏像写真ギャラリー 飛鳥園 **불상사진 갤러리 아스카엔** 도다이지 절에서 도보 7분

나라의 저명한 사진가가 찍은 불상이나 사찰의 건축, 풍경 등의 사진을 일반 공개하는 갤러리. 정원을 내다보는 가야부키(초가지붕) 별관에서는 기획전시나 불상강의도 개최됩니다.

나라시 노보리오지초 59 +81-742-22-5883



미륵보살반가상(한국 국보 제83호)

주구지 목조보살반가상

이용 안내
나라현 이코마군 이카루가초 호류지키타 1-1-2 +81-745-75-2106(주구지) 9:00~16:30(3/21~9/30), 9:00~16:00(10/1~3/20) 연중무휴 500엔 JR 호류지역에서 72·81번 버스를 타고 '주구지마에' 하차 도보 5분.
■공개 정보/미륵보살을 일반 공개(배관료 필요).



한국 부여군 가탈리에서 출토된 기와 간고지 절 기와

이용 안내
나라시 주인초 11 +81-742-23-1377(간고지) 9:00~17:00 연중무휴 400엔 JR 나라역에서 도보 15분, 긴테쓰 나라역에서 도보 10분.
■공개 정보/간고지 절 기와(극락당): 극락당 지붕 기와의 일부로서 일반 공개(배관료 필요). 또 '아스카데라 절 기와'로서 나라 현립 가시하라고고학연구소 부속 박물관(→11페이지)에서도 전시.(외국인 관광객은 여권을 제시하면 무료.)

한국 국보를 빼닮은 보살반가상이 모셔진 절

호류지 절의 동쪽에 인접한 주구지는 훗케지(法華寺), 엔쇼지(円照寺) 절과 함께 야마토 3대 문적 여승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목조보살반가상(국보)은 아스카시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뺨에 손가락을 대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하여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여의륜관음'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미술사적으로는 '미륵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녹나무를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일목조(一木造) 방식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섬세함을 실현하였고, 전면에 흑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상의 의복에 녹색과 붉은색, 그리고 가늘게 자른 금박이 남아 있는 점에서 옛날에는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불상이 녹나무로 제작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불상은 한반도에서 제작된 것을 들여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한국 국립 중앙박물관에 있는 신라 미륵보살 반가상과 아주 흡사하여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최고(最古)의 자수 공예품으로 전해지고 있는 천수국 만다라(국보)는 620년대 전반에 쇼토쿠 태자비가 쇼토쿠 태자의 죽음을 애도하여 도래계 화가에게 밑그림을 부탁하여 수를 놓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MORE...
목조보살반가상 스텝크로스, 모나리자와 함께 '세계 3대 미소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변 가이드
Hokkiji Temple 法起寺 **호키지 절** 주구지에서 도보 18분
호류지, 주구지 등과 함께 쇼토쿠 태자가 건립한 7개 절 중 하나입니다. 현존하는 삼층탑 가장 오래된 삼층탑 외에 목조실업면관음보살 입상 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나라현 이코마군 이카루가초 오카모토 1873 +81-745-75-5559

가라쿠니 신사 Karakuni Shrine 辛国神社



대불전 옆 언덕에 자리한 가라쿠니 신사는 도래인들이 선조를 신으로 모시기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덴구사(天狗社)라고도 하며 신사의 문장은 팔손이나무. 도다이지 창건 당시 다양한 형태로 절 건립을 방해한 덴구(상상 속의 요괴)를 로벤 승정이 개과천선시키고 불뼉 수호를 서약하게 하여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다이지에서는 대법회의 전달 방에는 반드시 가라쿠니 신사에서 덴구의 방해를 막기 위한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용 안내
나라시 조시초 406-1 +81-742-22-5511(도다이지) 7:30~17:30(4월~9월), 7:30~17:00(10월), 8:00~16:30(11월~2월), 8:00~17:00(3월) 대불전, 훗케도 당(산가쓰도 당(三月堂)), 가이단도 당(戒壇堂) 연중무휴 각 500엔(대불전, 훗케도 당(산가쓰도 당), 가이단도 당) JR 나라역 1, 2번 승차장 또는 긴테쓰 나라역 2번 및 4번(일부) 승차장에서 발차하는 버스를 타고 '다이부쓰덴카스가타이시마에' 하차 도보 8분.
■공개 정보/대불(대불전)과 가라쿠니 신사 모두 일반 공개(대불전은 배관료 필요).

MORE...
기와 적갈색과 흑색계는 아스카시대, 백색계는 나라시대, 회색계는 쇼와 시대의 기와입니다.
이 절을 중심으로 학승전 삼론종은 반야사상에 대해 저술한 '중론(中論)', '십이문론(十二門論)', '백론(百論)'을 바탕으로 수나라의 길장이 집대성한 것으로 길장의 제자인 고구려 출신의 혜관이 일본으로 건너와 호키지에서 전파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Naramachi Koshi-no-ie 奈良市ならまち格子の家 **나라시 나라마치 격자문 집** 간고지 절에서 도보 5분

나라마치의 전통적인 상가를 재현하여 옛 나라의 생활양식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상과 격자문의 역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시 간고지초 44 +81-742-23-4820

